

# ‘車보험 땅큐’ 하나손보, 흑자전환에 디지털손보 전환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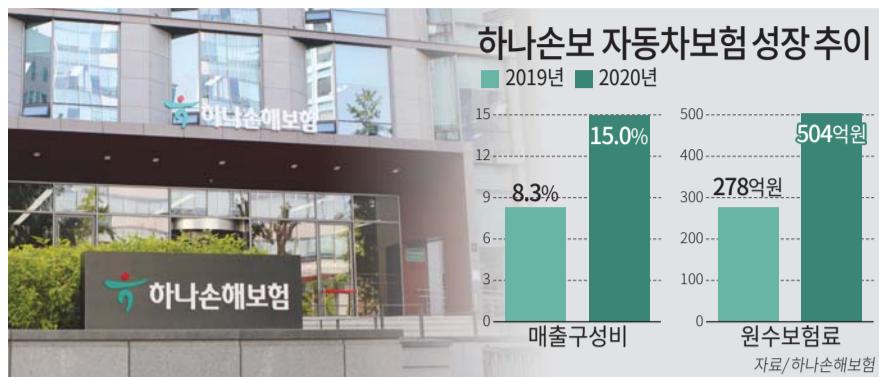
1분기 16억 당기순의 ‘흑자 전환’ 생활보험 위주 라인업 구축 예정 사옥 매각 통해 성장동력 확보

하나손해보험은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손보업계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지 관심이 쏠린다. 모바일 방카슈랑스 시장을 확대하고, 미니 생활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승승장구’**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나손보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채널 매출에서 전체의 15.0%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8.3%와 비교하면 6.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도 50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다.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지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



차보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다. 손보업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매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20.7%다. 이와 비교해 하나손보는 업계 평균보다 17%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하나손보의 흑자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손보는 올 1분기 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2019년 445억원, 2020년 68억원의 적자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같은 기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적이 많이 개선됐

다”며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선할인 제도 등을 통해 고객 유입이 늘며 올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매출 상승은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손보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에 나선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했다.

## ◆종합 디지털손보사 ‘도약’

하나손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성장세에 힘입어 종합 디지털손보사를 꿈

꾸고 있다. 우선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모바일 방카슈랑스’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손보는 지난해 12월 기업성 일반 보험(재산종합·기업종합·패키지보험)에 대해 대면 판매로 방카슈랑스를 개시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장기보험을 모바일 전용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과 채널을 동시에 확장했다. 최근에는 하나은행 원큐 앱을 통해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방카)(모바일)’도 선보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미니 생활보험’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아동학대피해 및 학교폭력피해 등을 보장하는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해자 유형이나 행위가 아닌 아동의 피해 사실과 대책에 집중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소액단기보험 시장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원데이레저보험인 낚시, 서핑보험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생활보험을 보험선물하기에 확대 적용해 지속해서 고객 접점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하나손보는 최근 사옥 매각을 통해 디지털손보사 전환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 자산은 디지털손보사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작년 2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했던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770억원에 인수해 작년 6월 하나손보를 공식 출범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신한금융, 디지털 SI펀드에 770억 투자

금융사 첫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혁신 플랫폼 기업 대상 선제적 투자

신한금융그룹은 12일 국내 금융사 최초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통해 혁신 디지털 플랫폼 기업 3곳에 총 77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초 그룹의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및 예비유니콘 기업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조성했다.

이번에 첫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포티투닷, 인성데이터, 펫이지 등이다. 이번 투자는 미래 시장 선점, 그룹사 핵심 디지털 사업 활성화, 비금융 플랫폼 연계를 통한 그룹 T&T(Traffic & Transaction) 확대 등 펀드의 조성

취지가 명확히 반영돼 있다.

먼저 신한금융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도 기업인 포티투닷에 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차별화된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한금융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사업자로 기대받고 있는 포티투닷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지불·결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핵심 디지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성데이터에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비금융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비금융 신사업 전담조직인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추진단’을 신설했다. ‘O2O 추진단’은 첫 번째 비금

융 사업으로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출시 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매출대금 정산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성데이터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스트 마일 물류 시장 업계 1위 서비스인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사업의 특화 배송 서비스, 가맹점 모집 등의 분야를 인성데이터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펫코노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펫 미용 예약 플랫폼 ‘반찌’를 운영하고 있는 펫이지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펫이지와 협업해 펫 관련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1000개 이상 제휴 가맹점을 보유한 펫이지의 ‘반찌’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일 하반기 그룹경영전략 워크숍에서 ‘그룹 ESG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대외에 선언했다. (왼쪽부터) 권광석 우리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 우리금융,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 지원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제로화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ESG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9일 하반기 그룹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 실행 방침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ESG 새 비전은 금융업의 특성과 ‘우리’라는 그룹 아이덴티티(Identity), 그리고 ESG경영 지향점을 함께 반영해 ‘굿 파이낸스 포 더 넥스트(Good Finance for the Next)·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로 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플랜 제로 100·탄소배출 Zero·ESG금융 100조 지원’을 선정했다.

기후변화가 범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아젠다라는 판단 아래 탄소중립을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으로 오는 2050년까지 그룹 자체의 탄소배출량은 물론,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제로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는 동시에 그룹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ESG상품·대출·투자 및 ESG채권 발행 등 ESG금융에 1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금융은 ESG금융에 대한 기준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 투명한 공시 등 ESG금융 관리체계를 강화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ESG경영위원회 승인으로 ESG금융 원칙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금융 ESG금융 분류 체계인 ‘W-택소노미(Taxonomy)’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2일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새로운 ESG 비전 아래,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ESG 경영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이사회 내에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4월에는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 및 ESG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ESG금융 원칙도 제정했다. 하반기에는 ESG금융 지원을 체계화하고,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ESG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

## 하나銀, ‘외화 리포 동시결제 시스템’ 오픈

한국예탁결제원 연계

하나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한 ‘외화 리포(Repo) 동시결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 및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원화에서만 가능했던 동시결제 방식을 국내 최초로 외화에도 적용하는 시스템을 오픈하기 위해서다.



제할 경우 기존 분리결제 방식에서 발생하던 원금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외화 Repo 거래를 원하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로써 은행에 의해 외화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했던 증권사는 외화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외국환 전문 은행으로,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 출시로 위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